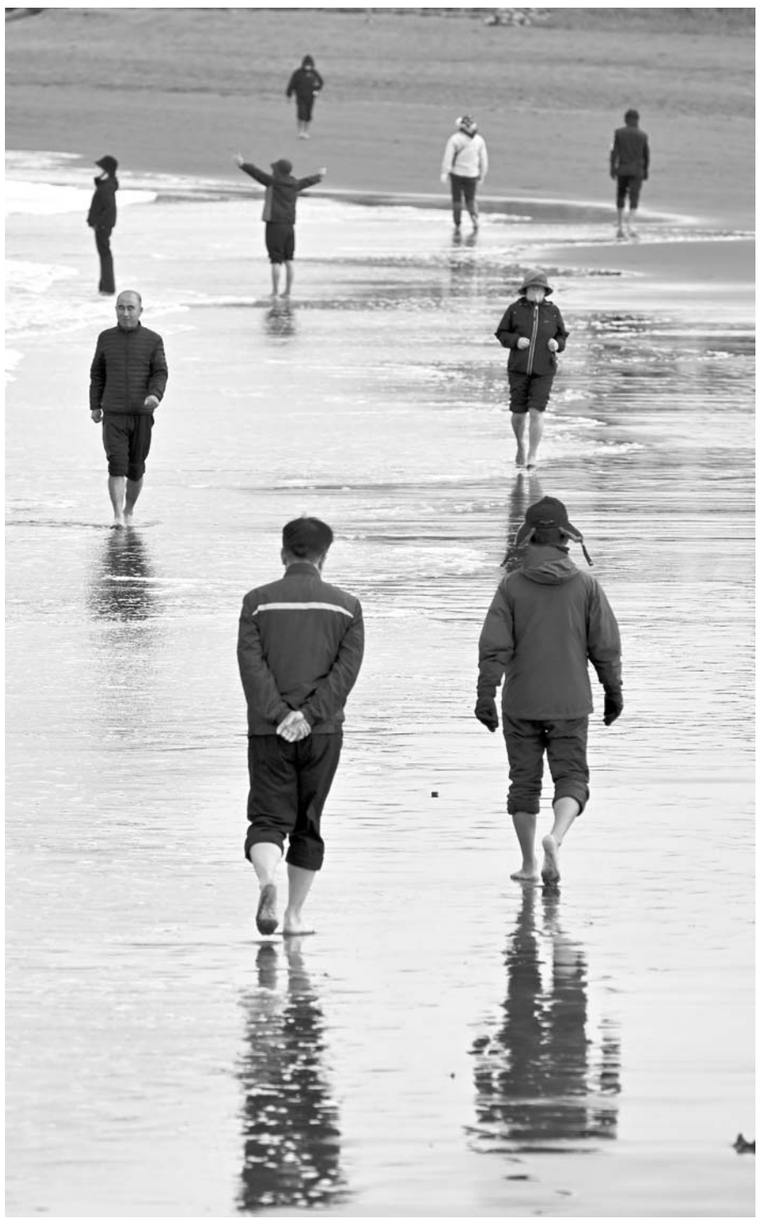


맨발로 해변을 걷는 시민들 3일 제주시 삼양동 삼양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맨발로 해변을 따라 걸으며 운동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분화구 탐방 가능할까

도, 6월 발주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탐방로 개설 포함
2000년 천연기념물 지정 후 20년 넘게 출입 전면 통제
일부 주민들 "분화구 내 지질상 등 제한적 공개 필요"

20년 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성산일출봉 내 분화구 출입이 가능한 탐방로 개설이 검토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6월 성산일출봉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방향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밝힌 이번 용역의 큰 방향은 기존 탐방로의 수용성 검토, 시설운영 효율화 방안과 주민참여 확대방안, 그리고 식생과 지질 변화 등이다.

이번 용역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기존 탐방로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일출봉 정상에서 분화구로 내려가는 탐방로 개설 여부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이다.

일출봉 분화구 탐방은 지난 2000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고유 식생과 수성 화산 특유의 지질학적 가치 보존을 위해 20년 넘게 엄격히 통제돼 왔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녹아 있는 분화구 내 지질상과 역사를 스토리텔링해 제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번 용역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이전에는 분화구 내부까지 계단이 설치돼 있어 일반 관람객이 직접 내려갈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분화구 안에서 소나 말을 방목하거나 억새를 베어내는 등 목축과 농업 용도로 활용되기도 했다.

세계유산본부도 문화재지구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만큼 탐방로 개설과 전면 개방에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특히 문화재형성변경허가 등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분포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조릿대 추가 제거 여부에 대해 이번 용역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본격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앞두고 방향성을 점검하는 차원인 만큼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최적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A아파트 인허가 감찰 맹탕… 의문 여전

도, 3일 감찰결과 발표… 미비점 감사위에 조사 청구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사기에 이어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 A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을 감찰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A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감찰한 결과, 특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조사 범위 내에서는 특혜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도는 감찰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비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해당 미비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실종 허위종결·해제 25건
경찰, 전직 경찰관 추가 송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의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경장이었던 30대 A씨에 대해 추가로 확인된 허위종결·해제 의심사례 25건을 수사한 결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A씨를 제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기존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2건 외에 추가로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해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10건은 기존 2건의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신고가 들어온 당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나 A씨가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코드를 허위로 입력해 관리목록을 해제(삭제)한 사례다.

박소정기자

"제주시 아라동 대형 유기견센터 건립 반대"

소음·악취·분뇨처리 등 주거·환경오염 우려 제기
해당 업체, 380마리 수용 2층 건물 2동 신축 계획

제주시 아라동 인다마을 주택가 인근에 유기견센터 신규 건립과 관련, 해당 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분뇨처리 문제, 지하수 오염 등의 주거환경 및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H업체는 사업비 4억6000만원(국비 6500만원, 지방비 1억6250만원, 자부담 2억3250만원)을 들여 제주시 아라2동 인다마을의 한 부지(4317㎡)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개·고양이 등 380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 2동, 지상 2층, 연면적 741.04㎡ 규모로 현재 제주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마을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일부가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며 대형 민간동물보호시설 건립에 대한 법적 적정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기견센터가 들어서면 소음 피해는 물론 악취, 분뇨 및 위생문제, 주거환경 및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대형 민간 유기견센터 건립에 반대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건립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적절한 대체부지 선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일부가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분뇨와 오폐수 처리, 증축 등의 문제에 대해 관련 협의 부서(7곳) 검토 결과, 법적 위반사항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현재 농지보전부담금과 증축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등이 아직 안 된 상태이며, 건축에 따른 허가 문제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새해 첫날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

'제28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가 2027년 1월 1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도민·관광객이 동참하는 국제이벤트로 주요 프로그램인 겨울바다 펭귄수영을 비롯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 참여는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하며, 펭귄수영 입수 참가 희망자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서귀포시관광협의회 누리집(https://jejusta.or.kr)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최초
청각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원장 강 동 우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
-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운영이사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정회원

와이덱스 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청각학 박사가 직접 상담하는 청각전문센터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관리로
더 잘 듣고, 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청력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 상담,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켜드립니다.
청력 평가 | 난청 상담 | 보청기 상담 | 청능재활 |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우청각센터의 차별성
청각학 박사 직접 상담
체계적인 피팅 및 관리 시스템
최신 청력평가 장비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신뢰
개인별 청취환경 분석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청각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삶을 함께합니다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 1005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hearingjeju.com